

인천아트플랫폼 2018 1차 <플랫폼 살롱>
(2018.4.24.(화)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개최)

□□ □□□ 2018 □□□□□□□□ <□□□□ □□>□ □□ □□□□ □□□□ □□□□ □□,

그 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니 삼이 하나씩 하나씩 지평선에 솟아올랐다.

자크 데리다 (안 뒤푸르 망렐) 1997년 작 < 환대에 대하여 > 동문선 PP 25-26
내가 보기엔 세미나 내내 인간의 문제인 것으로서의 "어디?"라는 물음의 계시에
귀착한다. 이 물음은 스피크스가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 끈 끈고
있는 한 인간에게 건넨 물음이라는 점이다.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 이외엔
고유한 장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진 인간에게,
그태도 자기 그림자를 앞장 세워 가고 있는 인간에게. "어디?"라는 물음은
나이가 없고 타동사적 이다. 이 물음은 장소에 대한, 거처에 대한, 무-장소에 대한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서 제기하며, 또한 사유를 대상에 대한 그 내포관계에서
그 기능 자체에 의해 배척한다. 진리라고는 슬래잡기 노래 가운데 뛰어가는 슬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진리를 발견케 하는 것은 진리의 움직임이고, 진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흔적이다.

구나 작가가 필사한 문장들
출처: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김경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정모 작가와의 대화
출처: 아트플랫폼 제공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시간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Berlin, street of art 2015>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시간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Good-Bye>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LED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I was here>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문화에서 살지 않는다.



박문희 작가와의 대화
출처: 아트플랫폼 제공

000 000 0000 000 00, 000 000 0000 000 00. 000 00 0000 00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 00
 0 00. 00 00 0000 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0 00, 00 000
 0 000 000 000 000 00000 00. 00 00 000 0000 000 0 0 000 000 000
 00 00. 00 00000 000 00000 000 000 000 0 00 000. 000 000 0 000
 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 0000 000 00 0000 000 000? 0
 00 000 00 00.



모 시라(Mo Sirra),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
사진출처: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모 시라(Mo Sirra)는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등자를 여러 개의 나무 테이블 위에 배치하여, '1000개의 등자는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작품은 현대 디자인의 미학과 실용성을 결합한 것으로, 조명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모 시라가 '1000개의 등자'라는 주제로 선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대 디자인의 미학과 실용성을 결합한 것으로, 조명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 2018 인천문화재단 <인천 문화>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인천 문화재단, 6층 전시실.

인천 문화재단 홈페이지(www.incheonculture.or.kr)를 방문하여 관람 신청.

이/이 블로그 3.0 버전
(링크, 링크 <http://expert4you.blog.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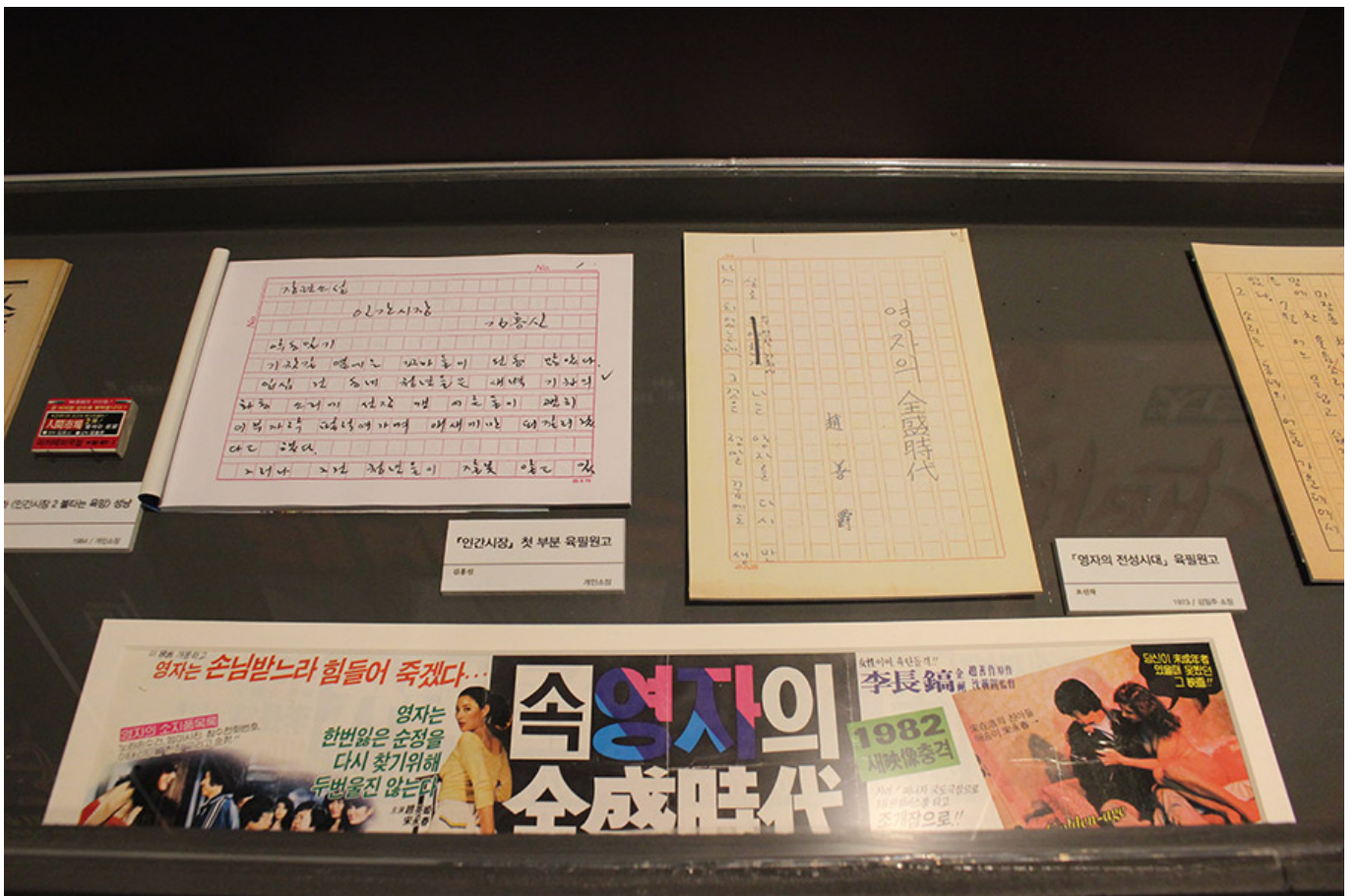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문학작품에 당시의 현실이 반영된다는 '현실반영론적 관점'에 의해 기획됐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량

'1906년 10월 10일'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이 날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이 날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이 날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1906)과 '1906년 10월 10일' (1906·1908)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1913)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1948)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1949~1952)과 '1906년 10월 10일' (1906·1954)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7~80년 '1906년 10월 10일' (1906·1972)과 '1906년 10월 10일' (1906·1981)은 1906년 10월 10일 1906년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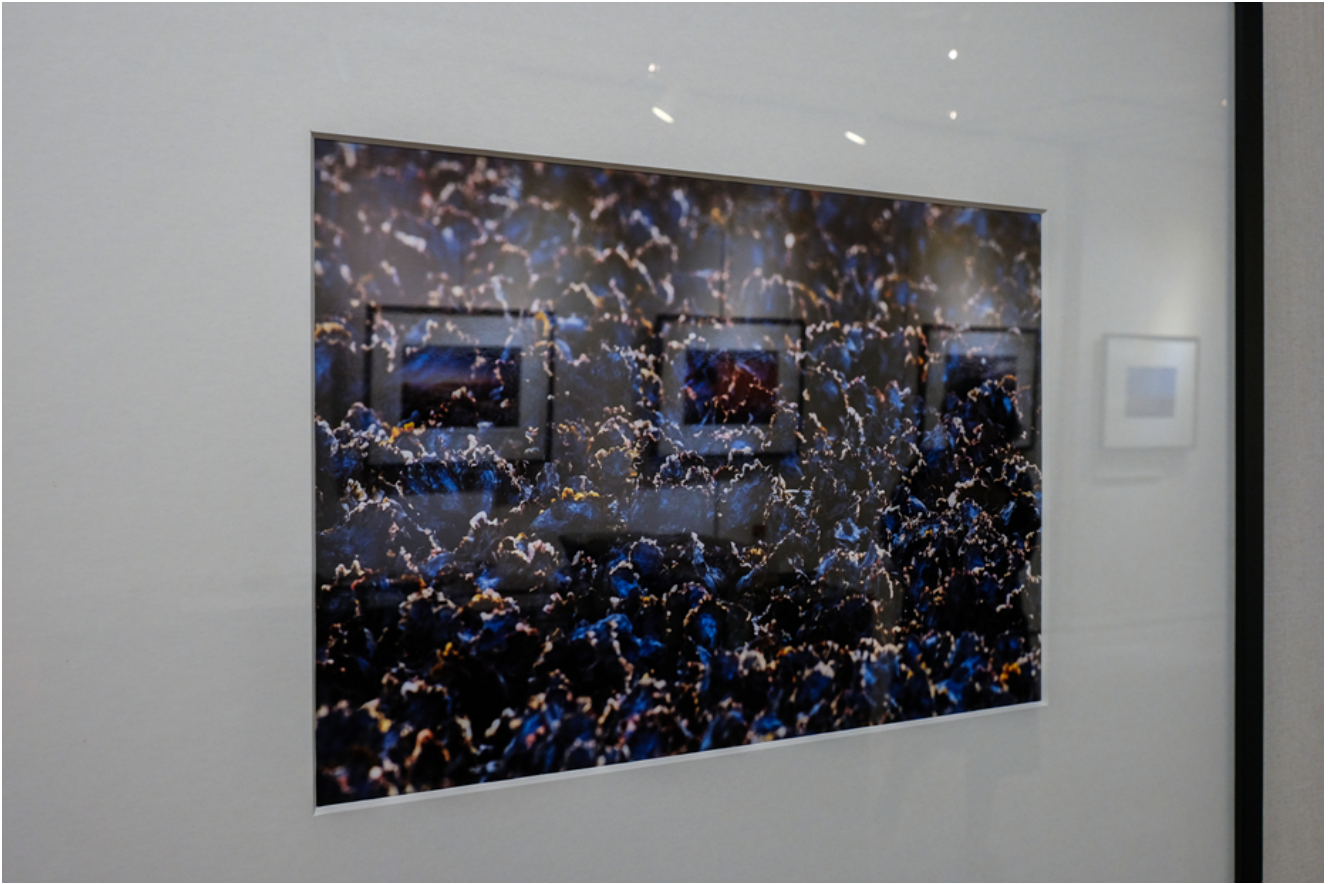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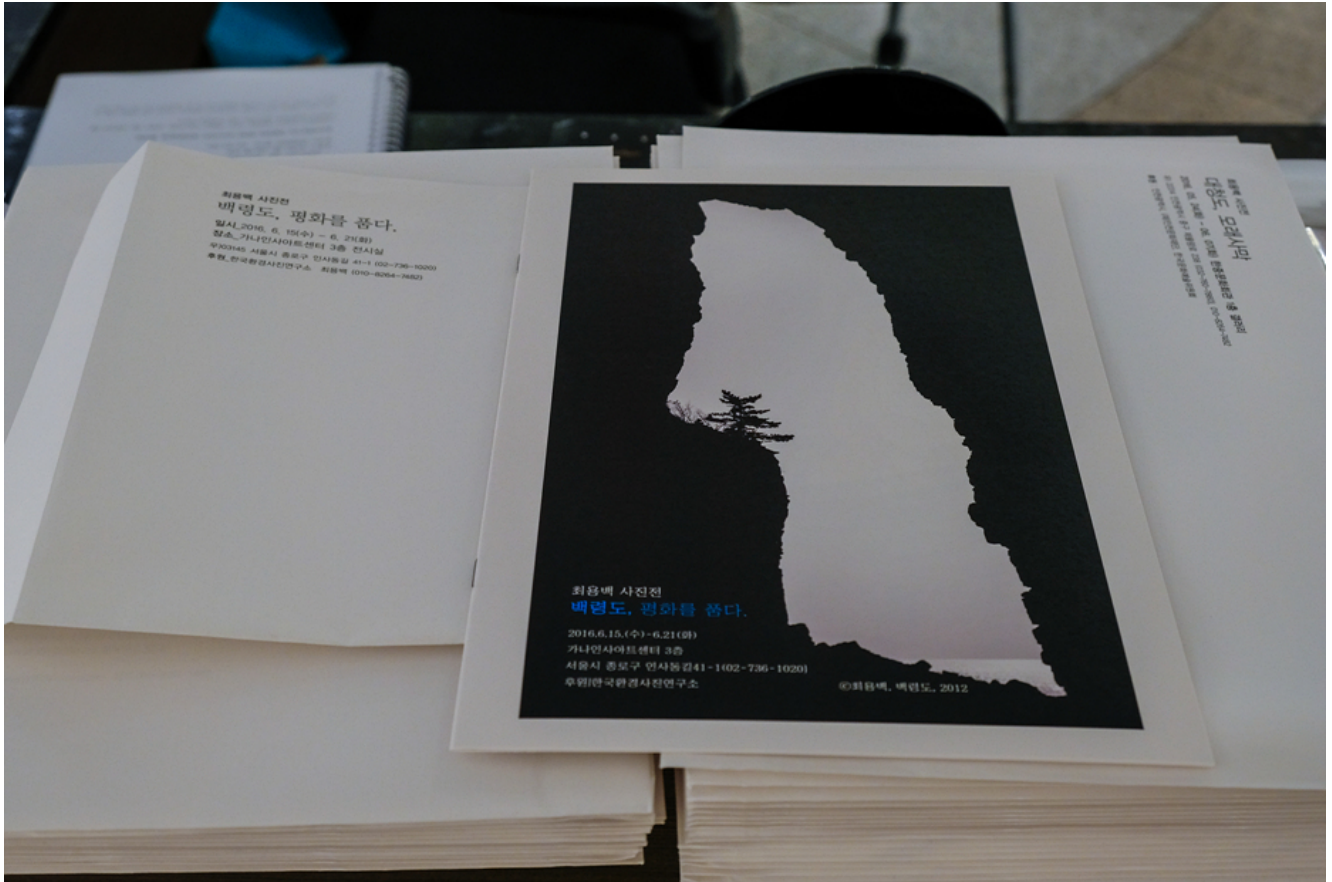
아날로그 문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들의 쓰던 애장품도 함께 전시됐다.
출처 : 취재기자 정해량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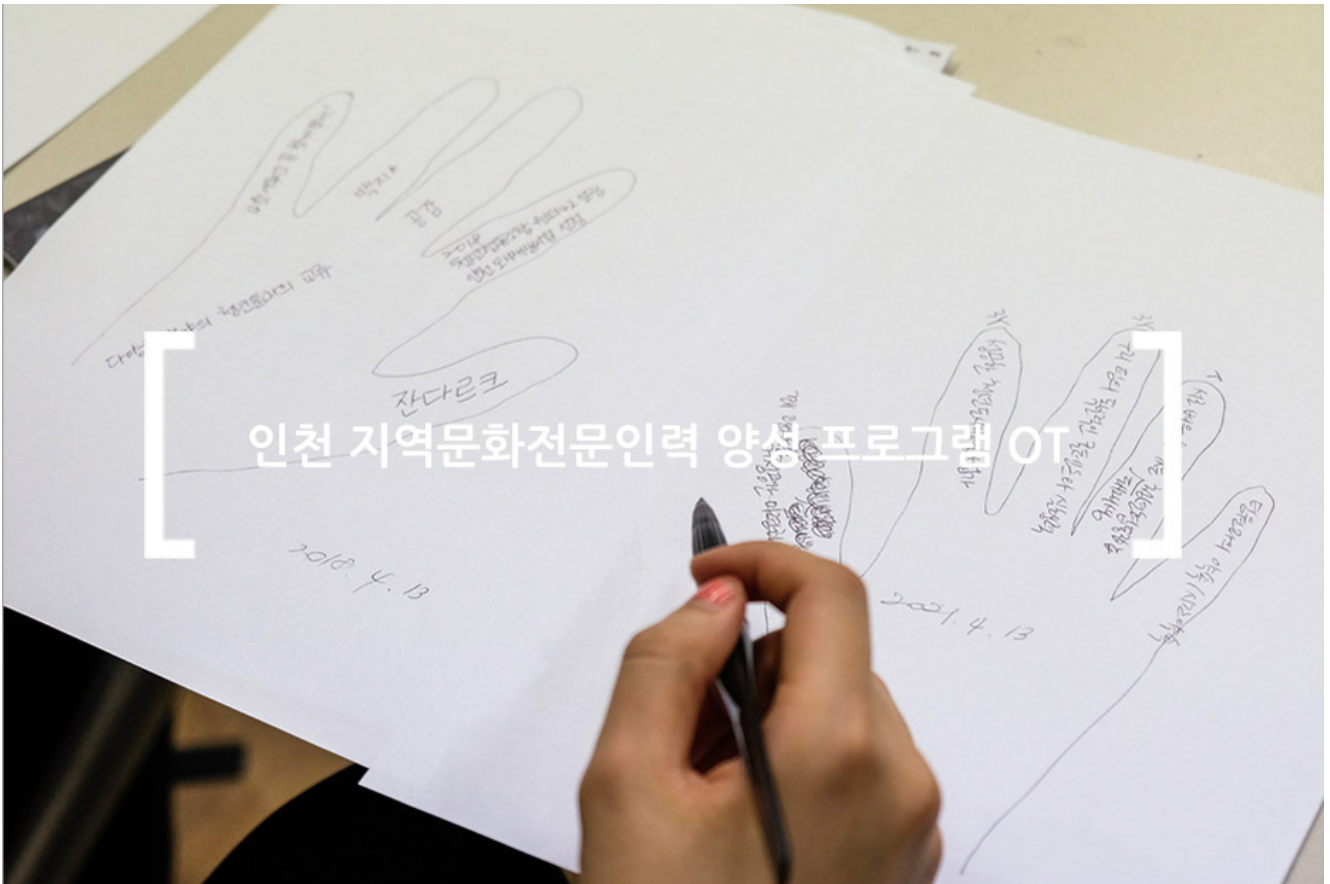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04.14(0) -04.26(0)
00: 00000 000(00000 00 00000238)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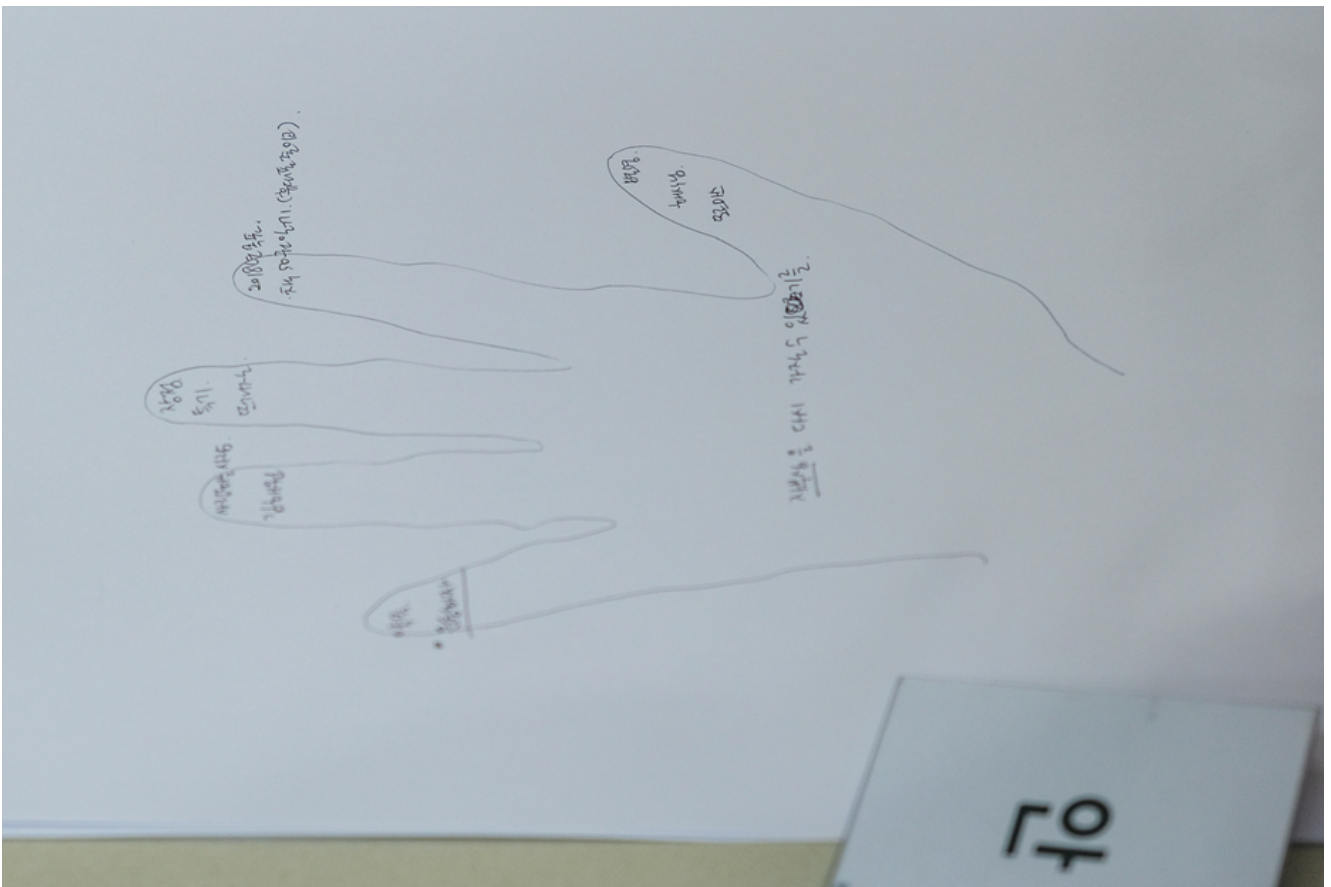
☐☐: ☐☐☐☐☐☐3.0 ☐☐☐

☐☐ ☐☐☐☐☐☐☐☐☐ ☐☐ ☐☐☐☐ OT



인 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 04.13(0), 0060~90
 00: 000000 000000 H0 20

00/00: 000000 00000

00: 0000003.0 000

‘0000000000’ 0000 <0>

00000 0000 000 00 000 ‘000000000’
‘000000000’의 28번째 0000 ‘0’



지난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잡'이 열렸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0 40 70 00000000 C0 000000 0000 00 00 000 0000 00 00. 00 4000 000
'0000000000'의 000000 00 00 00000 00 00000 00000 0 00 000.
00000 28000 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 000000
0000. 00 00 00000 0000 00000 0000000 000000 00 00000000 00000000 0000 0000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인형극 사이사이에 타악패와 춤패, 노래패의 공연이 채워지면서 다채로운 재미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 □□□□□ □□. □□□□ □□□ □□□□ □□□□ □□□□. 2□□□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문의/ 문의사항 3.0 문의 문의
marinboy58@naver.com

<공공 문화 공간> 공공문화공간 공공 문화 공간

공공문화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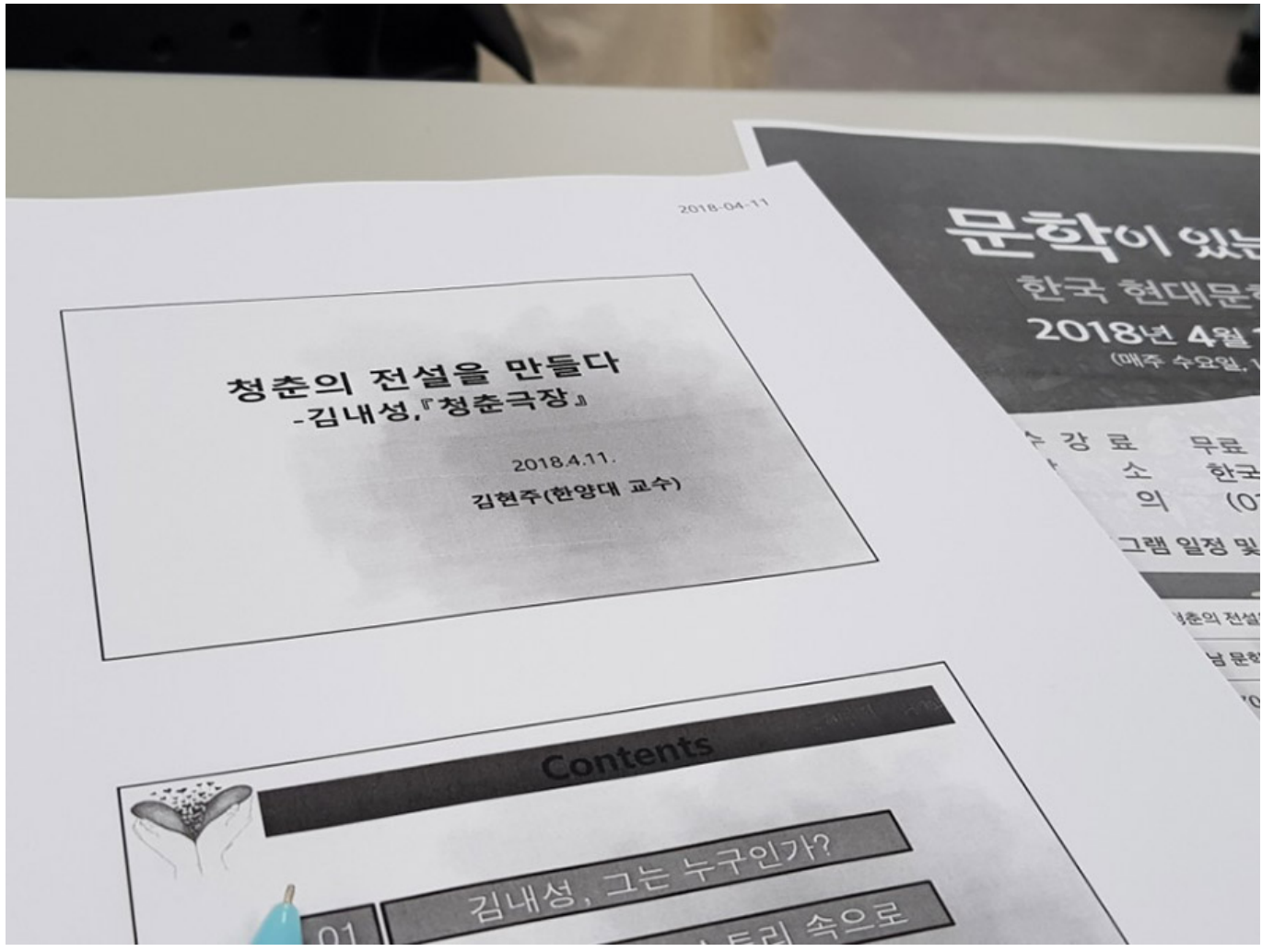
공공 문화?



'공공 문화 공간 -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은 6월 30일까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8월 31일까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0□□□□ 8□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셨고, 그 덕분에 공연이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공연 시작 전 연극 비온새라이브 무대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셨고, 그 덕분에 공연이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극단 작은 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 사진은 극단 작은 방의 공연 중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배우가 검은색 계단 위에서, 한 배우는 selfie 스틱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붉은색 의자에 앉은 배우는 관객을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여러 개의 나무 의자가 놓여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노란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어둡고 집중된 조명 아래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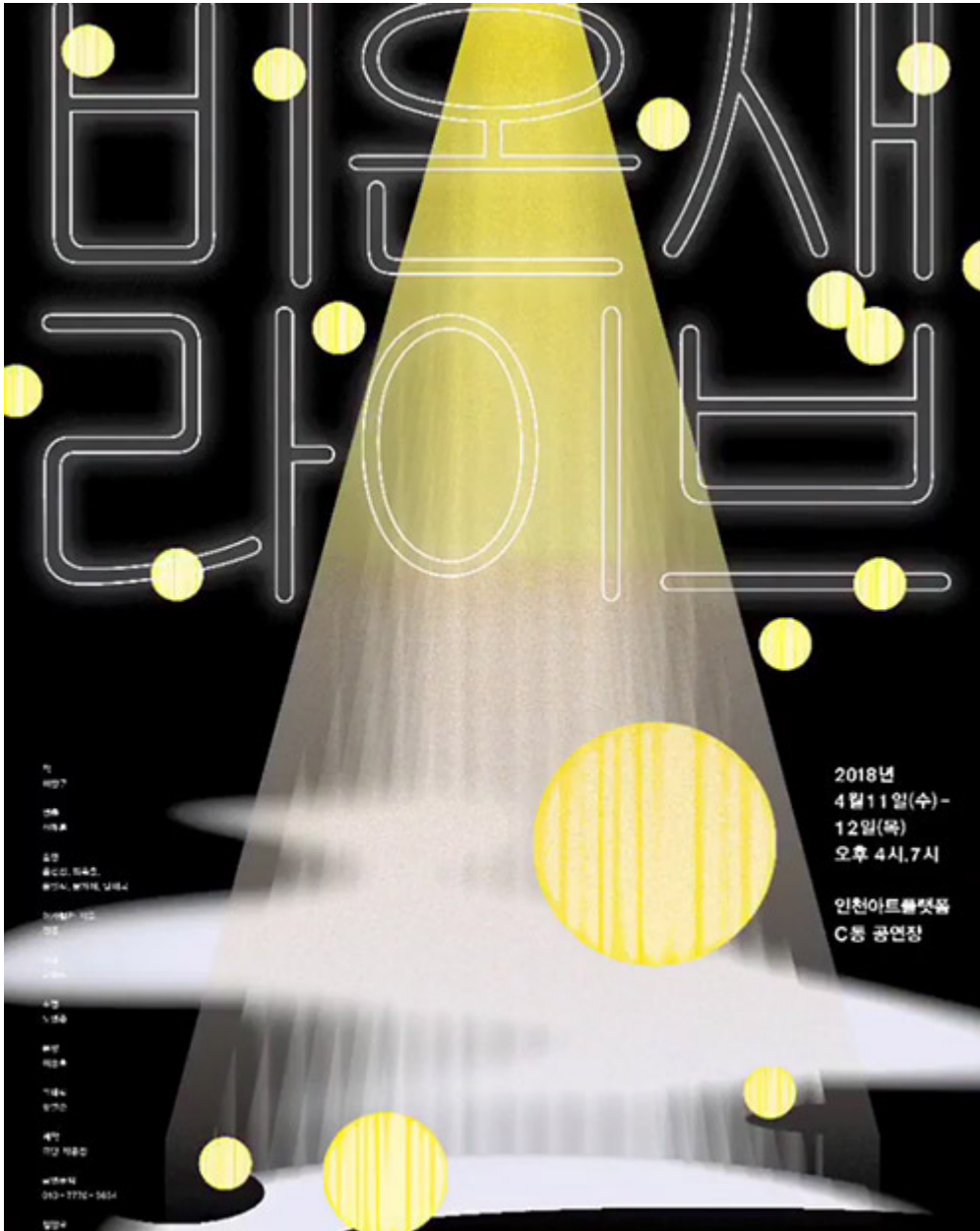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3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어떤 어떤 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문화재단 비온새라이브 포스터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

□ □□□

□□ □□ □□□

□□ □□□□□□ □□□ C

□□ 2017.4.11(□) ~ 12(□) □□ 4□, 7□

□. □□/

□□□ □□□□□□3.0 □□□□

2018 □□□□□ □□□□□□□ □□□□

2018 □□□□□ □□□□□□
@□□□□□ □□□□(2018/04/07, 05/05, 06/09, 08/25)

□□□□□□3.0 □□□□ □□□